

I 3 문명의 발생과 4대 문명

01. 문명

문명의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□□□ 사용, 농경 생산력 향상, 인구 증가 • 큰 강가 유역에서 관개 농업 발달 : 치수를 위한 노동력 필요 → 계급 분화, ②□□ 사용 • 지배자의 권력 강화와 도시 국가 형성
---------------	---

02.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

메소포타미아 문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원전 3,500년 경 •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• 이민족의 침입 빈번, 왕조의 잦은 교체(⑤□□□ → 아카드 → ④□□□ → 히타이트) • 정치 : 신정(신권) 정치 • 종교 : ⑤□□□ 다신교(⑥□□□□ □□□) • 문화 : ⑦□□□□ 건설, ⑧□□ 문자(점토판), ⑨□□진법과 □□□, 점성술 발달 • 바빌로니아 왕국 : ⑩□□□□ 법전 편찬
이집트 문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원전 3,000년 경 • ⑪□□□ 유역 : 강의 주기적 범람으로 땅이 비옥 • 폐쇄적인 지형 특성으로 오랫동안 통일 왕국 지속[고왕국(멤피스) → 중왕국(테베) → 신왕국(아마르나)] • 정치 : ⑫□□□의 신정(신왕) 정치 • 종교 : ⑬□□□ 다신교(미라, ⑭□□□ □) • 문화 : 피라미드와 스�핑크스 건설, 상형 문자를 ⑮□□□□에 기록, ⑯□□진법과 □□□, 기하학과 측량술 발달

03.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

⑰□□□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정복 활동 •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,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에 전파
⑱□□□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 주도 • 카르타고 등 해상 식민 도시 건설 • 표음 문자 사용 : 그리스에 전해져 알파벳의 기원이 됨
헤브라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스라엘 왕국 : 솔로몬 왕 때 전성기 →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 • ⑲□□□ 승배 사상과 유대교의 발전 : 크리스토폴, 이슬람교에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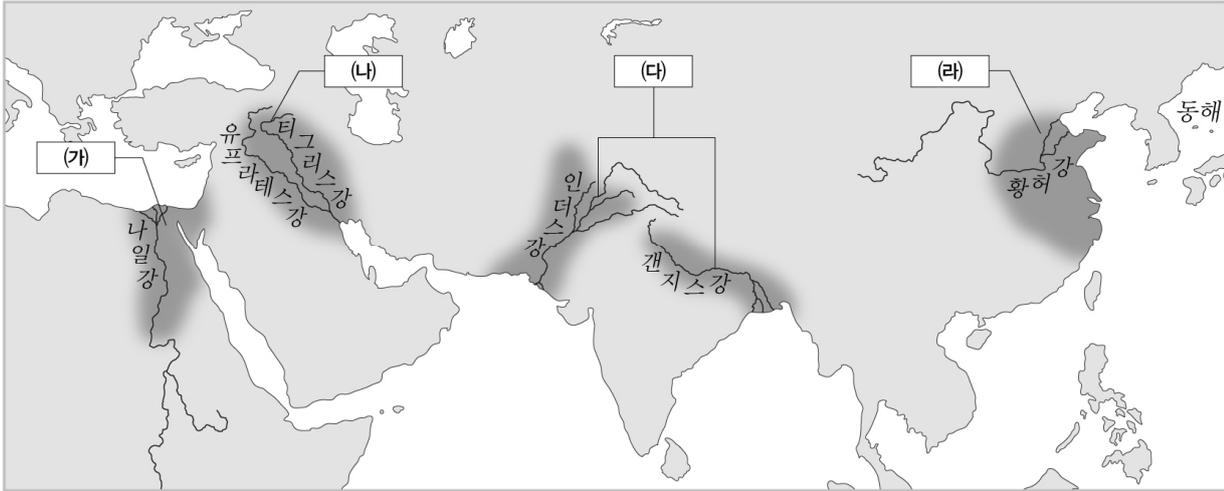
04. 인도 문명

인더스 문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원전 2,500년 경 • 인더스강 유역, 드라비다인 건설 추정 • ⑳□□□□와 □□□□□ 유적 : 계획도시 건설(포장도로, 배수 시설, 공중목욕탕, 광장, 창고 등을 갖춘) • 상형 문자, ㉑□□ 사용, 해상무역 종사(일찍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)
아리아인의 이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동 경로 : 기원전 1,500년 경 펀자브 지방 → 기원전 1,000년 경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 • ㉒□□□□ 확립 : 엄격한 신분 제도(브라만, 크샤트리아, 바이샤, 수드라) • 브라만교의 창시 : ㉓□□ 제작(자연에 관한 찬양과 제사 의식 정리)

05. 중국 문명

하 왕조	• 청동기, 기록상 최초의 왕조, 얼리티우 유적
상 왕조	• 기원전 1,600년 경 황허강 중류에서 성립 • 제정일치의 신정(신권) 정치, 은허 유적, ㉔□□□, 태음력
주 왕조	• 기원전 1,046년경 상을 무너뜨리고 호경(鎬京, 산시성 시안 부근)에 도읍 • ㉕□□□ 실시 : 왕이 직할지를 직접 다스리고, 나머지 지역은 친족과 공신에게 봉토를 분배하여 통치 • 천명사상과 덕치 강조, 종법(혈연적 질서)과 예법 중시, 경제(㉖□□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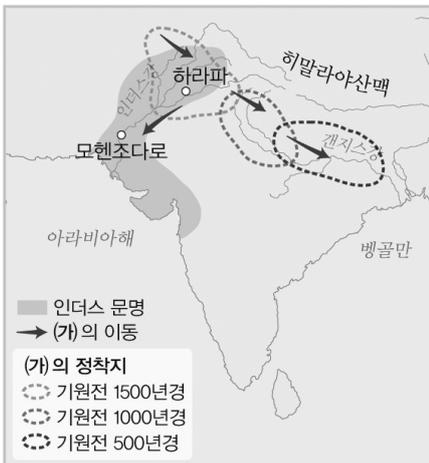
4대 문명



지중해 연안의 국가들



(가)의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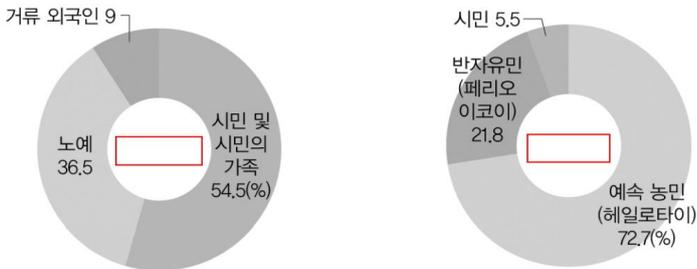


IV 1 고대 지중해 세계

01.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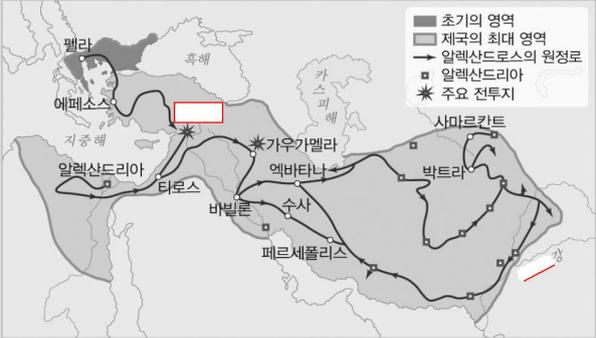
폴리스의 성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원전 10세기경 형성 : 복잡한 해안선, 많은 산지 → 통일 국가 형성이 어려움 구조 : ①□□□□□□(종교와 군사의 거점), 아고라(광장, 정치와 경제의 거점) 강한 동족 의식 형성 : 헬레네스로 다른 민족과 구분, ②□□□□ 제전 개최
③□□□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치 발전 : 왕정 → 귀족정 → ④□□□□ 솔론 : 귀족정 시기 평민의 성장(중장보병의 핵심, 경제력 증가) → ⑤□□□에 따른 참정권 차등 분배 페이시스트라토스 : 참주 정치 ⑥□□□□□□□□ : 부족제 개편, 500인 평의회 구성, ⑦□□□□□□ 마련
⑧□□□□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리스인이 원주민 정복하여 성립 : 시민 소수, ⑨□□□□□□(국유 노예)와 □□□□□□(반자유민) 군국주의적 귀족 정치 : 군사 제도를 바탕으로 둔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
그리스·페르시아 전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원전 492~기원전 479 세 차례 전쟁에서 그리스가 ⑩□□□□□□ 왕조 페르시아 격퇴 : 마라톤 전투, 테르모필레 전투, 살라미스 해전, 플라타이아이 전투 등 전쟁 이후 아테네의 성장 : ⑪□□□□□□의 맹주 ⑫□□□□□□ 시대 :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(민회가 입법권 행사, 공직자 수당제와 추천제)
⑬□□□□□□ 전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원전 431~기원전 404 아테네 주도의 동맹과 스파르타 주도 동맹의 충돌 : 그리스 폴리스 내부의 분열 스파르타가 패권 장악, 이후 그리스 세계 내분 → ⑭□□□□□□에 정복됨
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합리적, 인간 중심적인 문화 미술 : 조화와 균형의 미 중시, ⑮□□□□□□ 건축(기원전 438년), 아테네 여신상 역사 : 헤로도토스, 투키디데스 철학 : ⑯□□□□□□(수사학, 변론), 소크라테스(절대적 진리) → 플라톤 → 아리스토텔레스

▶ 폴리스의 비교(빅터 에렌버그, 『그리스 국가』)



IV 1 고대 지중해 세계

01. 알렉산드로스 제국

<p>성립과 발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리포스 2세의 폴리스 세계 장악 알렉산드로스의 ①□□□□ : ②□□□□ 전투, 가우가멜라 전투 승리 → ③□□□□□□ 왕조 페르시아 정복 : ④□□□□강 유역까지 진출 → 유럽, 아시아,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 건설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서 융합 정책 : 페르시아의 전제군주제 수용, 피정복민의 전통과 관습 존중, 정복지에 ⑤□□□□□□□□ 건설,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 장려
<p>⑥□□□□ 문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융합 → 개방적,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적 철학 발달 : 스토아학파(금욕주의), 에피쿠로스학파(마음의 안정과 만족 추구) 자연 과학 발전 : 물리학(아르키메데스, 부력의 원리), 수학(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), 태양중심설(아리스타르코스) 예술 : 「밀로의 비너스상」, 「라오콘 군상」 등 ⑦□□□□ 미술 성립에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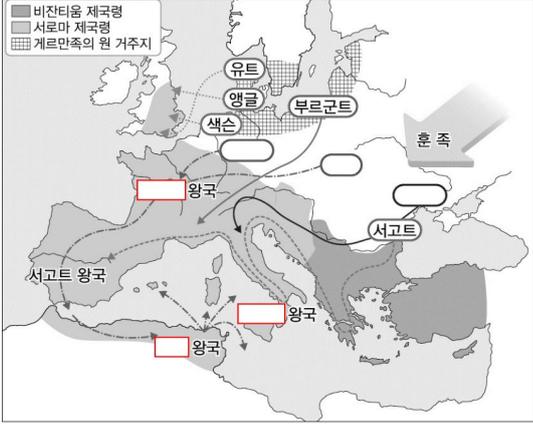
02. 로마의 성립과 발전

<p>공화정의 발전 (BC.509~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민의 지위 신장(기원전 5세기 ~ 3세기) : ⑧□□□□ 설치, 평민회 조직 : ⑨□□□□법 → ⑩□□□□□□법(집정관 중 1인 평민 선출) → ⑪□□□□□□□□법(법률상 귀족·평민 동등) 이탈리아반도 통일(기원전 272) ⑫□□□□ 전쟁(기원전 264~기원전 146) : 로마와 ⑬□□□□□의 세 차례에 걸친 충돌 → 로마 승리, ⑭□□□□□ 패권 장악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⑮□□□□□□(대농장) 경영과 자영농의 몰락 ⑯□□□□□□의 개혁 : 농지법과 곡물법 스파르타쿠스의 난(기원전 73~기원전 71) 삼두 정치(기원전 60~기원전 31) : 1차(카이사르, 폼페이우스, 크라수스) : 2차(옥타비아누스, 안토니우스, 레피두스) →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의 ⑰□□□□□ 해전 승리 카레 전투(기원전 53) → ⑱□□□□□□와 충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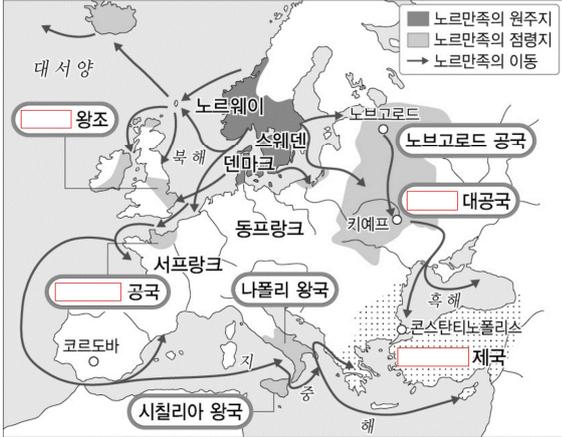
<p>제정의 수립과 변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옥타비아누스의 16□□□□ 자처 →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 칭호 부여 → 사실상 제정 시작 • 로마의 평화 시대(기원전 27~기원후 180) : 제정 시작 ~ 5현제 시대(96~180) • 군인 황제 시대(235~28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게르만족이나 21□□ 왕조 페르시아 등 이민족 침입 : 속주의 반란이나 독립으로 농경지와 노예 감소 → 24□□□□□□ 제도 성행 • 중흥 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22□□□□□□□□ 황제(재위 284~305, 전제군주제 확립, 4분 통치) : 26□□□□□□□□ 대제(재위 306~337, 28□□□□ □□ 이후 크리스티교 공인, 26□□□□□□□□ 천도) : 26□□□□□□□□ 황제(재위 379~395, 테살로니카 칙령 반포 이후 크리스티교 27□□□□) • 로마의 분열 → 서로마(395~476), 동로마(395~1453)
<p>문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8□□□□ 분야 발달 • 법 : 12표법 → 시민법 → 만민법 • 건축 : 도로 건설, 26□□□□(원형 경기장), 판테온 신전, 개선문 등 • 철학 : 스토아철학이 상류층에서 유행 • 천문학 : 프톨레마이오스(천동설)

IV 2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

01. 프랑크 왕국의 발전

<p>게르만족의 이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 증가, 로마 제국 약화, 훈족의 압박 속에서 대규모 이동 서고트 왕국, ❶□□□□(카르타고 점령, 435~534), 프랑크 왕국(481~987), 동고트 왕국(이탈리아 왕국, 493~553) 등 성립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게르만족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 ❷□□□ 제국 멸망
<p>프랑크 왕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메로베우스 왕조(481~75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❸□□□□(재위 481~511, 왕조 개창,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) ❹□□□□ □□□□(궁재(宮宰), ❹□□□□□□□□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 격퇴(732)) → 서유럽 보호 카롤루스 왕조(751~98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❺□□□(재위 751~768, 킬데리쿠스 3세를 폐위하고 왕조 개창, 라벤나 지역을 교황청에 기증) ❻□□□□ 대체(재위 768~814, 서로마 황제 대관(800), 문예 부흥 노력과 ❸□□□□ □□□□) ❼□□□□ 조약(843), ❽□□□□ 조약(870) 동프랑크, 중프랑크, 서프랑크로 분열 → 독일, 이탈리아, 프랑스의 기원 

2. 서유럽 봉건 사회의 성립

<p>봉건제의 형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세기 말 노르만족의 대이동 →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봉건제의 구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□□□(주군과 봉신의 쌍무적 계약관계, 봉신의 불입권 인정 → 지방 분권화 촉진) 장원제(영주 직영지와 농노 보유지, ②□□□ 경작 방식) ③□□(일하는 자,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혼 가능, 재산 소유, 부역과 공납의 의무, 영주의 시설 이용료 납부,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음
<p>봉건 국가의 발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프랑크(카페 왕조 개창, 987), 동프랑크(오토 1세가 신성 로마 황제 대관, 962), ④□□□ 왕조 개창(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잉글랜드 정복, 1066)

3. 크리스티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

<p>크리스티교의 발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직 계서제(봉건적 주종 관계 형성) : 교황 → 대주교 → 주교 → 교구 성직자(사제) 레오 3세의 ⑤□□ □□□(726) : 서로마 교회에 대한 ⑥□□□□ 제국 황제의 지배권 강화 의도 동서 교회의 분열(1054) : 로마 가톨릭교회, ⑦□□□ □□□(정교일치의 황제 교황주의) 교회 개혁 운동(10세기) : 교회의 세속화 → 클뤼니 수도원 중심 ⑧□□□□ □□(107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⑨□□□ □□□을 두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의 대립 ⑩□□□ □□(112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황 칼리스투스 2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 → 교회법에 따른 성직자 임명 인노켄티우스 3세(재위 1198~1216) 때 교황권 절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4차 십자군 전쟁(1202~1204), 존왕 파문(1209), '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'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4. 서유럽 봉건 사회의 문화

<p>특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 ⑪□□□ 철학 : 신앙과 이성의 조화 추구, 토마스 아퀴나스(1225~1274)의 『신학대전』(1267) 대학 : 종합적 성격으로 자치 운영, 파리 대학(신학, 교수 조합)·볼로냐 대학(법학, 학생 조합) 로마네스크 양식(11세기) : 돔과 원형의 아치, 피사 성당 고딕 양식(12세기) : 첨탑, 스테인드글라스, 샤르트르 대성당·노르트담 대성당·켈른 성당 등 기사도 문학 : 『니벨룽겐의 노래』, 『아서왕 이야기』, 『롤랑의 노래』
------------------	--

IV 2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

01. 비잔티움 제국

<p>특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□□ □□□□(정교일치) • 수도 ②□□□□□□□□ → 동서 교통의 중심지로 번영
<p>변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③□□□□□□□ 황제(재위 527~565) • : 전성기, 북아프리카 진출[반달 왕국(, 435~534) 정복], 이탈리아 장악[동고트 왕국(493~553) 정복]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『로마법 대전』 편찬, 성 소피아(아야 소피아) 성당 건립(537) • 이라클리오스 황제(재위 610~641) • :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전쟁에 대비하여 ④□□ 설치 ↳ 31개의 군관구, 황제가 임명한 스트라테고스(사령관)가 군사·행정·사법권 행사 • : 둔전병제(屯田兵制, colonial militia) 시행 • 사산 왕조 페르시아(224~651)와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시리아, 이집트 상실 • : 야르무크 전투(비잔티움 제국·사산 왕조 페르시아 연합 ↔ 칼리프 우마르 휘하의 군대, 636) • 11세기 ⑤□□□ □□□ 침입 • : 알렉시우스 1세(재위 1081~1118)가 서유럽에 파병 요청 → 십자군 전쟁 발발(1096) • 제4차 십자군 전쟁(1202~1204)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→ ⑥□□ 제국 건설(1204~1261) • ⑦□□□ 제국의 메(흐)메트 2세에 의해 멸망(1453)
<p>문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징 : 그리스어(공용어), 그리스 정교 + 그리스·로마 문화 + ⑧□□□□ 문화 → 독자적 문화 발전 • 비잔티움 양식 : 웅장한 돔, 모자이크화 발달, ⑨□□ □□□ 성당 • 영향 • : ⑩□□□ 문화(러시아·동유럽 문화)의 발전 • : 키예프 공국의 성장[그리스 정교 국교화, 성 소피아 대성당(키이우) 건립]

02. 봉건 사회의 변화

<p>⑪□□□ 전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 • : 셀주크 튀르크의 예루살렘 점령(1071) → 성지 순례 박해 • : 셀주크 튀르크의 비잔티움 제국 압박 → 비잔티움 황제의 도움 요청 • :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⑫□□□□ 공의회 소집(1095)과 성지 회복 호소 • 전개 • : 국왕, 제후, 상인, 농민 등 참여 • : ⑬□□□ 십자군[1096~1099, 성지 탈환 성공, ⑭□□□□ 왕국 건설(성모 수호자 고트프루아)] • : 제3차 십자군[1189~1192,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 ↔ 영국의 리처드 1세, 평화 협정 체결] • : ⑮□□□ 십자군[1202~1204, 베네치아 상인 개입,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→ ⑯□□ 제국 건설] • 영향 • : ⑰□□□ 약화, 제후와 기사 몰락, 왕권 강화, ⑱□□ □□ 활성화, 서유럽의 문화 자극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p>11 □□□ 전쟁</p>	
------------------	--

<p>교역의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거리 교역과 11 □□ □□ 발달 • 지중해 무역권(이탈리아의 베네치아-피렌체 등), 상파뉴 지방(정기시 발달, 지중해와 북유럽 연결), 북유럽 무역권(뤼베크, 함부르크 등의 도시가 참여하여 12 □□ □□ 결성)
---------------	---

<p>도시의 성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치권 획득 : 도시민들이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자치권 행사 → 독자적으로 도시 행정 운영 • 길드 조직 :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, 생산과 상업 활동 통제(상인 길드, 수공업자 길드)
---------------	---

<p>장원제의 해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 : 화폐 경제 발달 →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·화폐 지대 요구 → 농노의 지위 향상 • 12 □□□의 유행 → 노동력 감소 → 농노의 처우 개선 • 농노 해방과 자영 농민 증가 → 장원 점차 해체 • 농민봉기 : 일부 영주들의 속박 강화, 12 □□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증세 • 13 □□□의 난(프랑스, 1358), 14 □□ □□의 난(영국, 1381)
----------------	--

<p>교황권의 쇠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 :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 약화 • 13 □□□ □□(1309~1377) :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 → 최초 삼부회 소집(1302) → 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킴(아나니 사건) → 교황청이 16 □□□□으로 옮겨짐 • 교회의 대분열(13 □□□□~□□□□) :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대립 • 교회 개혁의 움직임 : 위클리프, 후스의 교회 비판(『성서』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) • 14 □□□□ 공의회(1414~1418) :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, 후스 화형, 새로운 단일 교황 선출(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)
---------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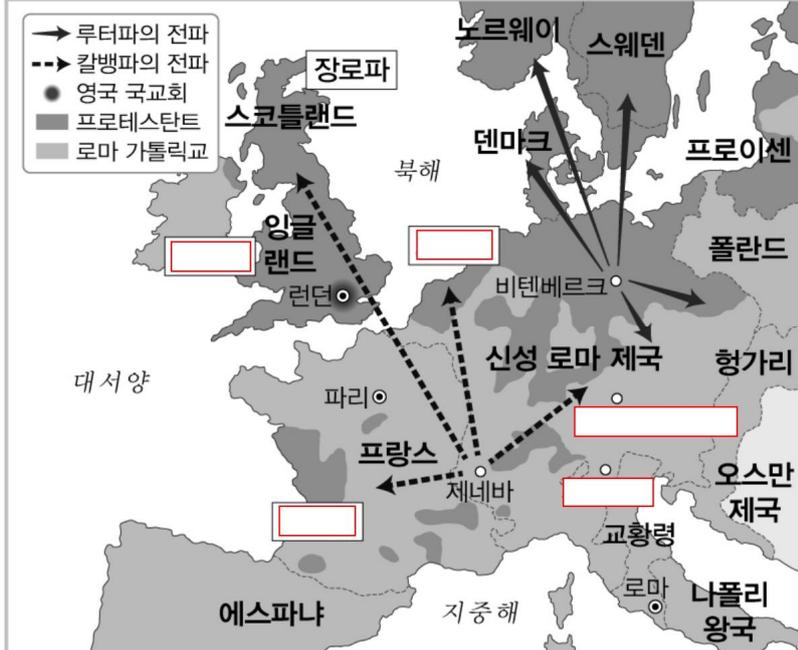
왕권의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봉건 영주의 세력 약화, 교황권 쇠퇴, 도시 상공업자들의 성장 • 국왕이 상비군과 관료 양성, 사법권과 과세권 확대
유럽 각국의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존왕의 ㉔□□□ 승인(1215) : ㉕□□ 전쟁(1337~1453) → 장미 전쟁(1455~1485) →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• 프랑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필리프 2세의 왕권 강화 → ㉖□□ 전쟁(잔 다르크의 활약 등으로 승리) →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• 독일 지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㉗□□ □□ □□ 황제의 명목상 통치, 제후의 강력한 세력 유지 • ㉘□□ □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교황령, 베네치아·피렌체 등 도시 국가,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 • 이베리아반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재정복 운동 과정에서 아라곤과 카스티야 성립 → 에스파냐 왕국 탄생(1469) → 이슬람의 근거지인 ㉙□□□□ 정복(1492) : 카스티야로부터 독립한 ㉚□□□□의 성장

03.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

르네상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미 : 14~16세기에 전개된 그리스·로마 고전 문화 부흥 운동, '부활'·'재생'을 의미 • ㉛□□□□의 르네상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 존중, ㉜□□□□ 제국의 많은 학자 유입, ㉝□□□□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인·군주들이 문예 활동 장려 : 그리스·로마의 고전 작품 연구, 인문주의(휴머니즘) 및 예술 분야 발달 : 인문주의자[페트라르카(서정시), ㉞□□□□(『데카메론』), 마키아벨리(『군주론』)] : 보티첼리(비너스의 탄생), 레오나르도 다빈치(모나리자), 미켈란젤로(다비드상), 라파엘로(아테네 학당) • ㉟□□□□ 이북의 르네상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, 초기 크리스티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 → ㊱□□□□에 영향 : 인문주의자[㊲□□□□□(『우신예찬』), 토머스 모어(『유토피아』)] : 반에이크 형제(유화 기법 개발), 브뤼헬(서민의 생활 모습 표현) 등 : ㊳□□□□ 발달[세르반테스(『돈키호테』), 셰익스피어(『로미오와 줄리엣』, 『햄릿』 등)] • 과학 기술의 발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르네상스 시대의 관찰과 탐구 정신,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 기술의 개량 : 화학(봉건 기사의 몰락 촉진), ㊴□□□(원거리 항해에 이용,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), 구텐베르크의 ㊵□□□ □□□(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)
종교 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㊶□□□의 종교 개혁(151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해 ㊷□□□ 판매 :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, 신앙의 근거는 『성서』(성서 지상주의) : ㊸□□□의 「95개조 반박문」 제시 → ㊹□□□파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립 : ㊺□□□□□□□ 화의(1555, ㊻□□□파 인정) • ㊼□□□의 종교 개혁(153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예정설 주장, 근면하고 검소한 작업 생활 강조 : 신흥 상공업자의 호응 → 영국(청교도), ㊽□□□(위그노), 네덜란드(㊾□□□) 등지로 전파 • 영국의 종교 개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교황과 대립 →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·경제적 동기 : 주장법을 통해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(㊿□□□□) → 수도원 해산, 교회 토지·재산 몰수 : ㋀□□□□□ 1세의 통일법 반포(1559) → 영국 국교회 확립 : 교리는 신흥, 의식은 구교에 가까움

종교 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수회 설립(1534) : 에스파냐의 로올라가 설립, 아시아·아프리카·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 전개 •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 : 공의회[1545~1563, 교황과 교회의 권위 재확인, 폐단 시정 노력, 예수회 승인, 교회 내부의 결속강화(종교 재판소 설치, 금서 목록 작성 등)]
--------------	---

종교 전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 :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(신교)와 로마 가톨릭교(구교)의 대립 격화 • 독립 전쟁(1568~1648) : 신교도(고이센)를 중심으로 에스파냐와 전쟁 → 독립 달성 • 프랑스 위그노 전쟁(1562~1598) : 앙리 4세의 칙령(1598,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 허용) • 독일 지역 전쟁(1618~1648) : 국제 전쟁으로 확대 → 조약 체결(1648, 인정, 독립 승인)
--------------	--



IV 3 유럽 세계의 변화

01. 신항로 개척과 유럽 교역망의 확장

<p>신항로 개척의 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방에 관한 관심 증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마르코 폴로의 『동방견문록』이 호기심 자극 : 동방 산물(향신료, 비단 등)에 대한 욕구 증대 • ①□□□ 제국의 동서 무역 주도로 인해 동방과의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로 필요 • 조선술과 항해 도구(나침반 사용) 등 기술의 발달 → 원양 항해 가능
<p>유럽의 신항로 개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도 : 포르투갈과 에스파냐(②□□□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신항로 개척 주도) • ③□□□□의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바르톨로메우 디아스(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도착, 1488) : ④□□□ □ □□(인도 항로 개척, 1498) • ⑤□□□□의 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콜럼버스(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 도착, 1492), 마젤란(그의 일행이 세계 일주 성공, 1522) <div data-bbox="379 801 1362 131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▲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신항로 개척</p> </div>